

5월 7일 영국 지방선거 실시

킹스턴 등 런던 32개 구의원 투표 ... 한인 후보들 '역대 최다' 도전

오는 5월 7일(목) 잉글랜드 전역의 134개 지방 의회에서 총 4,800여 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런던 내 32개 자치구 Borough 전체와 주요 도시의 의원직을 새로 뽑는 만큼 키어 스타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어질 전망이다.

한인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킹스톤 Kingston upon Thames을 비롯해 인근의 머튼 Merton, 서턴 Sutton 등 런던 내 모든 자치구에서 의원 선출이 이루어진다.

특히 킹스톤은 총 19개 선거구에서 48명의 구의원을 선출한다.

주요 한인 후보로는 2018년 한인 최초로 런던 구의원에 당선된 권보



라(Bora Kwon, 해머스미스 & 풀럼, 노동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킹스톤에서는 현직 의원인 김동성 (Robert Kim, 뉴몰든 빌리지, 자유민주당), 박옥진 (Elizabeth Park, 울드 몰든, 자유민주당) 의원과 더불어

어 조솔 (Callum Sol Morrissey, 모츠퍼 파크 울드 몰든 이스트, 자유민주당), 임혜정 (Jane Lim, 톨위스, 자유민주당), 이마셀 (Marcel Lee, 콤 베일, 보수당), 존 백 (John Baek, 울드 몰든, 보수당) 후보가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 주류 정치권에 끊임없이 도전 중인 티모시 조 (Timothy Cho, 스톡포트 Stockport, 보수당) 후보와 박지현 (Jihyun Park, 맨체스터 베리 Manchester Bury, 보수당)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며 지지층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Voter ID)을 지참해야 한다.

- 투표 시간: 5월 7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 유권자 등록 마감: 4월 20일 자정까지
- 우편 투표 신청: 4월 21일 오후 5시까지



안병수 씨, 2026 시장 공동체 상 수상

지난 10일 (금) 킹스톤 길드홀에서 열린 '2026 시장 공동체 상(Mayor's Community Awards 2026)' 시상식에서 안병수 씨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 씨는 지난 13년 동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선단체 '킹스톤 웰케어(Kingston WelCare)'의 시설 유지보수 자원봉사를 실천해 왔다.

'시장 공동체 상'은 지역 시민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활동을 시장이 직접 검토하여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역대 한인 수상자로는 고(故) 노영하(2010년), 장정은(2022년), 임형수(2023년), 고(故) 권석하(2024년) 씨가 있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재외국민 신고·신청 27일 마감

- 기간 :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까지 <자세한 내용 14, 32면 참조>
- 대상 : 18세 이상 (2008년 5월 8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이민칼럼 18
 학생비자 영국서 단기종교비자 변경

아이러브스테이지 22
 K-뮤지컬, 해외 창작진 협업

글라스고 '한국의 날' 23
 성황리에 마무리

시인 박혜경 26
 어떤 바보

최성주 목사 28
 4월 아름다운 교통의 십자가

프리미엄 딸다냥 발패치

네오돔 3000 가우스 동전패치

가치 있는 상품을 만나는 스토어 웰빙 카페
WELL-BEING CAFE
 07842 758 697

하나로 익스프레스
 (전세계 특송 전문)
 -항공/해상/창고보관/이사-
 ☎ 020 8949 6923
 07940 554 685
 EU/UK 정식 수출·입면허 허가업체(EORI No. 보유)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07379 960 460 / 020 8417 1123

워크비자/스폰서쉽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79 4450 5952 (왓츠앱)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카톡 ID :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대한보험 차·집·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십시오!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ggm 지지엠

 ♥맛있는... 직접만든 순대, 순대국
 ☎ 020 8337 7999

C&C Express
 국내·해외 이사·Delivery
 안택 & 커머셜 (수출·수입)
 07740 283 409
 07833 671 027

A3 MOTORZ
 튜업 / 타이밍벨트 / 오일교환
 타이어 교환·펑크 / 전기문제
 New Malden KT3 3NE
 ☎ 07540 142 017
 기술자 엄관식

★★★★★ KOREAN RESTAURANT
강남
 open 월요일 (점심휴무) 17~23
 수요일 (점심휴무) 17~23
 화요일은 쉽니다 목요일 (점심휴무) 17~23
 금요일 12~15 / 17~23
 토·일요일 종일영업 12~23

미소 하우스
 민박/하숙, 뉴몰든역 3분 고급 단독 주택
 출장 주재 연수 여행, Wifi, 조식 석식 한식
 일일 욕실룸 / 넓은 가족룸, 카드결제 가능
 카톡 ID : misohouse
0782 333 6807

시나이 모터스
 SYNAI MOTORS

 도색 전문
 보험·수리
 MOT 대행
 020 8241 0836 / 07880 700 492
 167 Surbiton Hill Park, Surbiton KT5 8EJ

유엔 “이란전쟁 ‘3중쇼크’, 세계 3천250만명 빈곤층 전략 위험”

에너지, 식품, 경제성장 둔화...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원 삭감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품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라는 ‘3중 쇼크’로 전세계에서 3천25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략할 위험을 맞았으며 개도상국들이 받는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13일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UNDP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춘계 회의를 맞아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별기에 총리인 알렉산더 더크로 UNDP 총재는 국제 개발에서 이뤄졌던 진전이 이번 전쟁으로 퇴

보하는 ‘역개발’ (development in reverse)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전은 매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전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이미 발생한 상태”라며 “특히 빈곤국들에서 간신히 가난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빈곤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NDP가 제시한 이란 전쟁 시나리오 3개 중 최악은 6주간 석유와 가

스 생산에 큰 지장이 생기고 고비용이 8개월간 지속되는 경우였다.

이럴 경우 전세계에서 3천250만명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UNDP는 전망했다.

이는 2021년 구매력평가(PPP)기준 중상위소득국(UMIC) 빈곤선인 하루 수입 8.30 달러(1만2천350원)를 기준으로 따진 것이다.

전세계 빈곤인구 증가분의 절반은 페르시아만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작은 섬나라 개발도상국 등의 에너지 순수입국 37개국에 집중될 것이라고 UNDP는 전망했다.

더크로는 개발도상국의 가장 취약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격을 상쇄하는 데에 약 60억 달러(8조9천억 원)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와 개발은행들에게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결과로도 긍정적”이라며, 전기나 취사용 가스에 대한 일시적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UNDP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무차별로 보조금을 주는 데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럴 경우 불필요하게 상대적 고소득 가구에도 지원이 가게 되고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UNDP의 이런 개발도상국 지원 촉구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은 대외 원조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지난 주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들의 2025년 원조 지출은 1천743억 달러(259조4천억 원)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분의 1 가까이 삭감된 것이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와 가스 공급과 비료 생산 등이 차단되고 글로벌 해운에 지장이 생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런 영향으로 개발도상국에 ‘식량 안보 시한폭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연합뉴스



버진애틀랜틱 인천-런던 직항 노선 6년 만에 매일 운항 영국 국적기인 버진애틀랜틱이 인천-런던 신규 직항 노선 취항을 기념해 14일 낮 인천공항에서 기념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6년 만에 주 7회 운항하는 버진애틀랜틱 인천 출발 편은 매일 낮 12시 25분 출발해 현지 시각 오후 6시 50분 런던에 도착하고, 런던 출발 편은 오후 1시 25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0시 5분 인천에 도착한다. 첫 취항 일은 지난달 29일이다. 객실은 여객 클래스(비즈니스석) 31석,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35석, 이코노미석 192석으로 구성됐다.

코리아위클리

The Korean Weekly

The Leading Weekly Newspaper For Koreans Since 1991

- 대표·발행인 박종만 Jongman Park
- 이메일 koweekly@koweekly.co.uk
- 웹사이트 koweekly.co.uk
- 광고 문의 07961 778 296



집에서 받아보세요 정기구독 안내

- 격주 목요일 발행
- 4개월(8회) : £21
- 6개월(12회) : £28
- 12개월(24회) : £56
- 구독 신청 koweekly@koweekly.co.uk

연합뉴스=본지특약 기사·사진 콘텐츠 사용 허가



영국 대표 동포지 코리아위클리는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스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정식계약을 맺어 독자 여러분께 다양한 기사와 선명한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우 초청 만찬 안내

고려대 김동원 총장 · 승명호 교우회장(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 회장)과 함께하는 영국 교우 만남의 자리

■ 행사 개요

1. 행사명 : 고려대학교 총장 · 교우회장 초청 런던 교우 만찬
2. 일 시 : 2026년 5월 12일(화) 오후 6시
3. 장 소 : Warren House (Warren Rd, Kingston upon Thames KT2 7HY)
4. 대 상 : 영국 거주 및 체류 중인 모든 교우 및 재학생

■ 참석 신청 안내

1. 신청정보 : 이름 / 학과 / 학번 / 연락처
 2. 회신 이메일 : dwlee3369@hotmail.com / kuaa@kuaa.or.kr
 3. 참가비 : 무료
- ※ 주변에 알고 계시는 교우님이 있다면 본 소식을 널리 공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OREA ALUMNI
고려대학교 교우회

학생비자 영국서 단기종교비자 변경

Q: 영국 비자 중에 Tier 5 단기종교 비자인 Religious visa 2년짜리가 있는데, 이를 신규로 신청할 때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나 그 동반비자 소지자가 이 비자로 Switching이 가능한가?

A: 영국 내에서 스위칭이 가능하다. 오늘은 단기종교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 단기종교비자란?

영국 단기종교비자 즉, Temporary Work - Religious Worker (종교직 종교 종사자) 비자는 선교 활동, 종교 교육, 또는 종교 단체 내의 비목회적(non-pastoral)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영국에 체류하려는 분들을 위한 비자다.

이 비자는 2026년 현재 전면 디지털화된 eVisa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과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단기종교비자 신청 핵심 요건

① 스폰서십 증명서 (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 가장 중요한 서류다. 영국 내 승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CoS 참조 번호를 받아야 한다.

■ 역할 정의: 해당 역할이 목회(설교, 예배 주례 등)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선교나 종교 공동체 지원 활동임을 증명해야 한다.

(주된 역할이 목회라면 'Minister of Religion' 비자를 신청해야 함)

■ RLMT (Resident Labour Consideration): 스폰서 기관은 해당 직무에 영국 현지 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정 능력 증명 (Financial Requirement)

영국 체류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금액: 최소 £1,270의 잔고를 본인 계좌에 28일 연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예외: 스폰서 기관이 CoS 상에서 'Maintenance' 를 보증

(Certify)해준다면 별도의 잔고 증명은 생략 가능하다.

③ 영어 성적 면제 다른 취업 비자와 달리, 이 비자는 영어 시험 성적(IELTS 등) 제출 의무가 아니다.

④ 결핵 검사 (TB Test)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 결핵 검사 결과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체류 기간 및 활동 범위

■ 최대 체류 기간: 최대 24개월 (또는 CoS에 기재된 기간 + 14일)

■ 비자 연장: 최대 24개월 한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동반 가족: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추가 근무: 원래 직무 외에 주당 20시간 이내의 보충적 업무



(Supplementary work) 가능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영주권 전환 불가 (No Settlement)

이 비자는 영구 거주(ILR)로 이어지지 않는 한시적 비자다.

영국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5년 체류 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Minister of Religion (Tier 2) 비자를 처음부터 고려해야 한다.

■ 쿨링오프 기간 (Cooling-off Period)

이 비자로 최대 기간(24개월)을 채우고 영국을 떠난 경우, 다시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12개월을 영국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속해서 계속 머물 수 없음)

■ 디지털 ID 체크 (eVisa)

2026년부터 모든 비자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UK Immigration: ID Check' 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며, 종이 비자(비네트)나 BRP 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디지털 셰어 코드(Share Code)로 신원을 증명하게 된다.

■ 진실성 심사 (Genuineness Test)

내무부 심사관은 해당 직무가 실제 종교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자 발급을 위해 만들어진 역할인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스폰서 기관과의 관계와 직무 기술서가 일치해야 한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 영국이민센터
ukemin01@hotmail.com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www.ukimin.com / WhatsApp: +44 79 4450 5952

- 각종 비자문제 무료상담 (카톡, 왓츠앱, 이메일)
- 영주권 / 시민권 수속
- 지사설립 / 지사장파견비자 (UKEW)
- 배우자 / 파트너 / 피양세비자
- 스폰서십 (신규등록, 관리, COS발행)
- 이노베이터 / 스타트업비자
- 취업비자 / 종교비자
- GT우수인재비자
- 주재원 / 특파원 / 파견비자
- 아카데미 / 스탠다드 방문비자
- 학생비자 / 가디언비자
- 일반비자연장(FLR)
- 단기워킹비자
- 각종 동반비자

한인 영국공인 영국이민법 전문법률인의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영국비자 수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한인케이스는 자신있게 승인을 받아냅니다. 저희는 온라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이메일, 카톡, 왓츠앱 등 SNS를 통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률상담 각종체류비자
자신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 영국공인 비자수속기관

이메일 : ukemin@hotmail.com

상담 왓츠앱: +44 79 4450 5952 / 카톡 ID: johnhsuh (문자, 음성통화 - 이용 권유)

무료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월-금)

영국닷컴 서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T. 02 567 6131

E : ukemin03@hotmail.com



해외동포들을 위한 대림성모병원 해외종합건강검진



19년간의 해외검진 노하우 | 최고의 의료진 | 최첨단 의료장비 | 부담없는 비용

해외종합검진 혜택

- ① 로얄종합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② 세면도구제공
- ③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제공

당일종합검진

남 98만원 | 여 111만원 (40세 미만) 113만원 (40세 이상)

의사 상담(검사 전후), inbody, 안저검사, 청력검사, 심전도, 구강검사, 위내시경(수면 선택), 헬리코박터균 검사(CLO test), 흉부X-선검사, 골밀도, 저선량흉부CT, 두부CT, 뇌동맥류 위험 평가,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남), 골반초음파(여), 유방촬영(여 40세 이상), 유방초음파(여), 자궁경부세포진(여) 혈액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5종(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여), 전립선암(남)), 갑상선기능, 빈혈, 간염검사(A형/B형/C형), 간기능, 담관검사,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 칼슘, 혈액형검사, 전해질검사, 감염 및 성병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질환, 심근질환, 혈액학검사 및 백혈구 백분율, 소변검사 10종

입원종합검진

남 138만원 | 여 151만원 (40세 미만) 153만원 (40세 이상)

당일검진 포함

+ 폐기능, 복부비만CT, 대장내시경, 인유두종바이러스(여)
+ 혈액추가(빈혈정밀, 비타민D) + 비타민B & 비타민C(영양제) 주사 제공 + 1인실 제공

로얄종합검진

남 285만원 | 여 298만원 (40세 미만) 300만원 (40세 이상)

입원검진 포함

+ 뇌MRI, 뇌MRA(두부CT 대체), 척추 MRI(경추, 흉추, 요추, 천추)
+ 복부CT, 심장CT(관상동맥/조영제) +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 혈액추가(심혈관질환)



대림성모병원
DAERIM SAINT MARY'S HOSPITAL
홈페이지: www.drh.co.kr
07442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657

종합검진 상담 및 예약 안내

건강증진센터	대표전화	+82-(0)2-829-9359
	HP	+82-(0)10-2882-7205
	Kakao ID	drhcheck
	E-mail	2024091@drh.co.kr

교황·트럼프 갈등 심화... '현대판 십자군' 계기로 임계점 온 듯

레오 14세, 트럼프의 전쟁에 "전능도전·우상숭배" 거센 비판... 가톨릭 유권자들도 트럼프 지지층 이탈

이란 전쟁을 둘러싼 레오 14세 교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바티칸의 도덕적 권위와 워싱턴의 정치·군사적 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수십 년 만에 교황과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가장 날 선 대립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1일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레오 14세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오 14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문명을 소멸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례없는 수위로 비판했다.

레오 14세는 그러면서 "민간 인프라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인간이 저지할 수 있는 증오와 파괴의 징표"라며 외교를 통한 평화를 촉구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3세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설적 비판에 신중했으나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점점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다. '현대판 십자군'으로 볼 수 있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임계점에



12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연설하는 레오14세 교황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다루는 것은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일갈했고, 로버트 맥엘로이 추기경(워싱턴 교구)은 이번 전쟁이 가톨릭 교리의 '정의로운 전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으로 표현하는 등 종교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지만, 가톨릭 지도자들은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며 전쟁의 도덕성을 묻고 있다.

미국 가톨릭 지도부는 전쟁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를 분열시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레오 14세는 11일 저녁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아와 돈에 대한 우상숭배는 이제 그만! 권력 과시는 이제 그만! 전쟁은 이제 그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내 가톨릭 지도자들도 교황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블레이즈 수피치 추기경(시카고 교구)은 "실제 죽음과 고통이 따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바티칸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지표는 백악관의 설명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백인 가톨릭계의 트럼프 정책 지지율은 46%로 전년 51%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미국 내 급성장 중인 히스패닉 가톨릭계의 지지율은 18%에 그쳤다.

지난 3월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대중의 레오 14세의 호감도는 +34를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12)을 크게 앞질렀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미국 국방부와 당시 교황청 주미 대사였던 크리스토프 피에르 추기경 간 회동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일부 매체는 미국 국방부가 바티칸에 향후 군사 행동 지지를 압박했다고 전했지만, 국방부는 왜곡 보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앤드루 체스넛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는 "가톨릭계의 저항이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도덕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전세계 특송 전문

하나로 익스프레스

www.hanaroexpressuk.com

Tel: +44) 0208 949 6923

Mobile: +44) 07940 554 685

Kakao Talk: hanaroexpress (24 상담가능)

Email: hanaroexpressuk@gmail.com

Address: 29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UK [KT3 4BY]

- EU/UK 정식 수출입 면허 허가 업체 (EORI Number 보유)
- VAT 등록 업체 (사업자에 한하여 부가세 20% 환급 가능)
- 카드결제 가능
- 전시회 관련, 미술작품 (그림, 포트폴리오, 조소)

김준영의 I Love Stage 아이 러브 스테이지

글로벌 무대 노리는 K-뮤지컬, 해외 창작진 협업

한국 공연계에서 해외 창작진과의 협업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조는 상당히 다르다. 흔히 떠올리는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 연출가가 한국 창작 뮤지컬을 직접 연출하는 그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대신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훨씬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형태의 협업이다.

과거 한국 공연계는 해외 작품을 수입해 라이선스로 공연하는 데 집중해왔다. 완성된 작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구조였고 연출 역시 원작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작품을 해외로 가져가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애초에 작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해외 창작진들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과거에는 작품이 완성된 뒤 해외 시장을 고려했다면 지금은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관객을 염두에 두고 구조를 설계한다. 런던에서 진행되는 쇼케이스에서 영국 연출가와 음악 감독이 참여해 장면 구조와 리듬, 캐릭터 해석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한 연출 참여가 아니라 작품의 DNA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가깝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출발한 작품이 런던이나 뉴욕까지 진출해 주목받는 경험이 쌓이면서 제작자들은 국내 기준으로만 완성된 작품이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됐다. 결국 처음부터 글로벌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시장 역시 변화하고 있다. 런던



과 뉴욕은 여전히 세계 공연 산업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갈증도 커지고 있다. 기존 IP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신선한 이야기와 새로운 정서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 콘텐츠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 개발과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톱티어 연출가들이 한국 작품을 직접 맡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니다. 현실적

로는 언어 문제, 제작 시스템 차이, 비용 구조 등의 이유로 완전한 권한 이전은 쉽지 않다. 대신 개발 단계 참여, 공동 연출, 혹은 해외 진출을 위한 리디렉팅과 같은 형태가 주를 이룬다. 하나의 작품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계에서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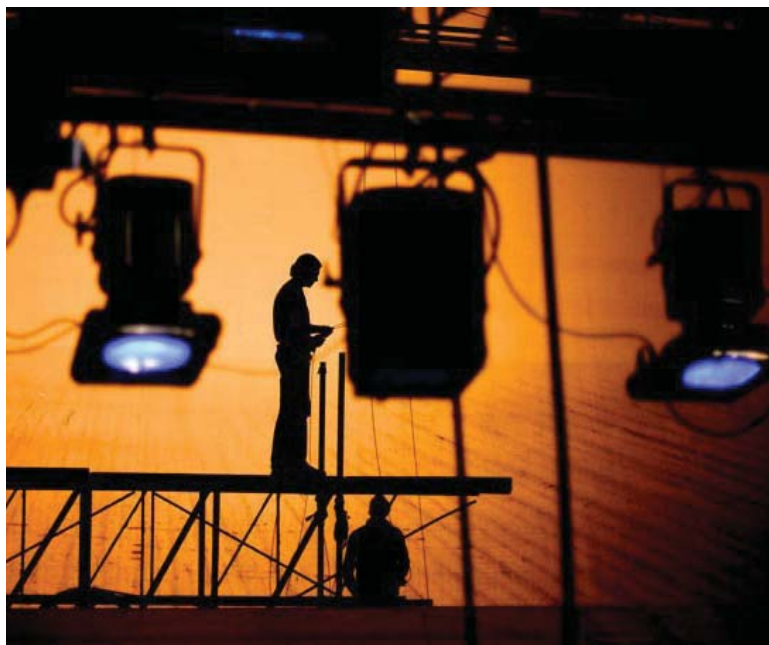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나 영국의 대형 상업 연출가보다 유럽, 특히 독일권 연출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업성과 예술

성을 동시에 다루는 데 익숙하며 음악 중심의 구조와 철학적 접근을 통해 한국 창작 뮤지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제작사 입장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작용한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협업의 증가가 아니라 제작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완성된 작품을 들고 나가는 시대에서 해외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했느냐보다, 언제부터 어떻게 함께 만들었느냐다.

한국 공연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 연출가와의 협업을 이벤트가 아닌 구조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그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ILOVESTAGE 김준영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 Shutterstock

[직업의 세계] 시어터 기술직 좋은가?

런던의 극장 좌석에 앉아 공연을 바라보면, 관객의 시선은 언제나 배우를 향한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진짜 질문은 그 뒤에서 시작된다. 이 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직업적 삶을 살고 있는가. 최근 Royal Opera House에서 열린 기술 청소년 극단 심포지엄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Chichester Festival Theatre와 같은 극장은 이미 기술 인력을 별도의 'Technical Youth Theatre'로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연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시어터 기술직은 과연 '좋은 직업'인가?

첫 번째 관점은 '희소성'이다. 공연계는 오랫동안 배우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해 왔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르다. 무대 감독, 조명 디자이너, 음향 엔지니어, 영상 프로그래머 등 기술 인력 없이는 단 하나의 공연도 완성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곧 역설적인 기회를 의미한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확장성'이다. 과거의 극장 기술은 조명과 무대 장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산업과 연결되고 있다.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인터랙티브 기술, 게임 엔진, XR, AI까지. 오늘날의 공연은 더 이상 순수한 예술이 아니라 복합 기술 산업에 가깝다. 이는 곧, 시어터 기술직이 더 이상 '극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화, 방송, 라이브 이벤트, 게임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경로를 갖는다.

세 번째는 '진입 장벽의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 기술을 전문 예술 영역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이 분야는 오히려 비전문자에게 열려 있다. 셰익스피어나 연극 경험이 없어도 된다. 대신 문제 해결 능력, 기술적 호기심, 협업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게임이나 IT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직업을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성'이다. 프리랜서 기반이 강한 구조, 프로젝트 단위 계약, 긴 노동 시간은 여전히 이 산업의 특징이다. 특히 초반 경력 단계에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하나는 '가시성의 부족'이다. 관객의 박수는 배우에게 향하지만, 기술 스태프의 이름은 프로그램 북 한 페이지에 머무른다. 이 직업은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이 길에 남을까. 답은 단순하다. '대체 불가능한 경험' 때문이다. 라이브 공연은 매 순간이 다르다. 버튼 하나, 큐 하나로 무대 전체의 감정이 바뀌는 순간을 직접 통제하는 경험은 다른 산업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다. 공연이 완성되는 그 짧은 시간,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서사를 만드는 언어가 된다. 이 지점에서 시어터 기술직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결국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가, 아니면 살아 있는 현장에서 창작에 참여하고 싶은가. 시어터 기술직은 후자의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선택지다. 그리고 지금 이 산업은 그 선택을 할 사람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개인의 진로 고민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이 무대를 계속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런던 뮤지컬 티켓을 예약하는 방식을 바꾸는 차세대 티켓 플랫폼

이제부터 개인도 그룹 할인 티켓 가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MING SOON www.togetix.com

ILOVESTAGE
LONDON THEATRE

ILOVESTAGE는 개인 여행객을 위한 최초의 한국어 웨스트엔드 공연 티켓 플랫폼을 구축하여 런던 뮤지컬을 해외 관객들과 연결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 PRESENTED BY ILOVESTAGE



글라스고 최초 '한국의 날', 성황리에 마무리 전통, 현대 예술, K-팝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 축제로 영국 관객 사로잡아

글라스고 한인회와 글라스고 대학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의 날(Korea Day in Glasgow)' 행사가 지난 11일(토), Queen Margaret Union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주영한국문화원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글라스고 지역 내 한인사회가 주도한 최초의 대규모 문화 행사로, 현지 교민, 영국 시민, 외국인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품격 공연과 다채로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행사의 첫 포문은 '음악과 미술의 만남'이 열렸다. 백순실 화가의 추상 미술 작품을 배경으로 성시내 연주가자가 이끄는 피아노·첼로·바이올린 트리오가 협연을 펼치며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특히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아리랑' 연주는 재외 한인들에게는 몽글한 향수를, 현지 관객들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이날의 백미로 꼽혔다.

이어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이 제 공한 한국 전통 예술 영상이 상영됐다. 대금·가야금 등 전통 국악기 연주와 전통·현대 무용을 담은 영상은 한국 공연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달하며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한 참석 교민은 "대영박물관이 소장한 자료를 통해 한국 문화의 위상을 확인하니 절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글라스고 대학교 K-pop Society의 무대

는 행사장의 열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화려한 군무로 무대를 가득 채운 학생 댄서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눈을 반짝이며 울동을 따라 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K-팝이 세대를 초월해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체험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한글 워크숍에서는 AI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한국어 이름을 짓는 이색 체험이 화제를 모았으며, 전통 부채 꾸미기와 광화문 포토부스에서 한복을 입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코너도 줄이 이어질 만큼 높은 인기를 누렸다.



글라스고 대학교 John Finch 교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다"며 "글라스고에서 이처럼 훌륭한 공연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휴 글라스고 한인회장은 "첫 행사에 이토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스코틀랜드에 꾸준히 알리며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의 날'은 영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하는 동시에 글라스고 한인 커뮤니티의 저력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기사 사진 제공 : 글라스고 한인회



금융전문가의 모기지 팁



- Mortgages
- Remortgages
- Buy to let Mortgages
- Commercial Mortgages
- Home Insurance

■ 차입능력을 높이는 방법

JBSP 모기지(Joint Borrower Sole Proprietor)를 이용하면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아 한사람의 법적 소유권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명이 함께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합산하여 차입 능력을 향상시켜 부동산을 구매하는 모기지 형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첫 구매자에게 유용하며 리모기지도 가능합니다.

■ 리모기지에 고려할 5가지 팁

- 사전 조사 (Research)
- 전문가 상담 (Seek advice)
- 충분한 시간 (Don't leave it too late)
- 비용/수수료 (Don't ignore the fees)
- 개인적 경제상황의 변동 (Consider if finance and lifestyle have changed)

■ 리모기지에 소요되는 시간

단순히 현재의 모기지 은행에 약정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Product Transfer 또는 Rate Switch), 새로 모기지 하는 것보다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로부터 더 나은 조건이 있는지 비교 평가하여 리모기지 하는 데는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모기지의 약정 기간이 끝나면, 대출은행의 자체 변동금리(Standard Variable Rate)로 전환됩니다. 이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모기지에 수반되는 비용/수수료의 종류

- 감정수수료 (Valuation fee)
- 변호사비 (Solicitors fee)
- 인지세 (Stamp duty)
- 상담료 (Broker fees)
- 토지거래세 (Land transaction tax)
- 대출계약수수료 (Lender agreement fees)

■ 홈인슈어런스는 의무사항

홈인슈어런스는 화재, 도난, 특정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건물보험(Buildings Insurance)과 집안의 가구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보험(Contents Insurance)로 구성되며, 특히 건물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리모기지 서비스

전문 컨설턴트가 귀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2년 또는 5년의 고정 금리 품목이나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의 트래커 금리 품목을 찾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리버전 금리(Reversion Rate)?

기존 모기지의 초기 고정 금리 기간이 끝나면 대출은행의 변동 금리(Standard Variable Rate)로 전환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리모기지 시기를 놓치고 높은 변동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지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FCA 등록된 한국인
어드바이저가 도와드립니다.**

1. 폭넓은 대출 기관들의 여러 조건들을 살펴서 최적의 품목을 찾아 추천해 드립니다.
2. 모기지와 관련된 개인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3. 준비 및 신청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SB Mortgage & Financial Services

Mr. SB Bae / Mortgage & Protection Adviser

상담·문의 전화 : **07904 571782** (WhatsApp available)

이메일 : **baesbuk@gmail.com**

Your home may be repossessed if you do not keep up repayments on your mortgage.
Buy to Let Mortgages are not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Some forms of Commercial Lending are not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Sang Bae Bae trading as SB Mortgage and Financial Services is an appointed representative of The Whitechurch Network Limited which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is is approved by In Partnership FRN 190859 October 2025)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병원은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퀄리티 높은 의료서비스를
휴람 혜택 적용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검진-진료-수술-
치료까지 휴람이 원스탑 서비스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한국문의 : +82 (0)70 4141 4040
카카오톡 : 010 3469 4040 (kakao ID: huraamkorea)
이메일 : huraam@huraam.kr
홈페이지 : www.huraamkorea.com



이란의 베르시유 궁전'으로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골레스탄 궁전 내부 '거울의 방'에 폭격으로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다.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문화유산 초토화

골레스탄 궁전 '거울의 방' 산산조각, '중동의 보석' 유적도 피해... 수천년 역사 폭격당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 40일간 이란 전역에 퍼부은 대대적인 공습으로 문화유산들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문화유산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전국에서 130곳이 넘는 유적이 직접 타격을 받거나 폭발의 여파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특히 테헤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카자르 왕조(1789~1925년) 골레스탄 궁전의 피해가 크다.

유네스코는 궁전 인근 아르그 광장의 경찰서와 법원을 겨냥한 공습으로 발생한 강력한 충격파로 인해 궁전의 자랑인 '거울의 방' 일부가 산산조각 나고 석조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는 등 큰 피해를 발생했다.

'중동의 보석'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유적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다. 사파비 왕조(1501~1736년) 시대의 기념물인 주청사를 겨냥한 공

습으로 인근 17세기 체헬 소튼 궁전의 벽화에 금이 가고 정교한 천장 장식도 파손됐다.

이 외에도 테헤란 북부의 사드아바드 궁전 단지와 서부 호람아바드의 3세기 팔라크-올-아플라크 성채 주변 유적들이 잇따라 훼손됐다.

이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하산 파르투시 사무총장은 "전쟁 전후로 유적지 좌표를 교전 당사국들에 유네스코를 통해 전달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공중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 표식을 설치했음에도 무시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국제법에 따라 타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무부는 "공습은 군사 자산을 목표로 한 것이지 문화유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란 국민 사이에서는 "이

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테헤란 시민은 "우리가 수천년간 지켜온 역사가 무책임하게 폭격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화유산 훼손은 이란 밖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화이트 시티' 내 바우하우스 건물이 파손됐으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 중인 레바논의 세계유산들도 파손 위기에 처해 있다.

유네스코는 취약한 유적지의 문화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긴급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훼손된 유적을 복원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며, 복원되더라도 원래의 가치를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합뉴스

어떤 바보

박혜경

흰 색을 희다 하고
검은 색을 검다 하지요.

비가 오면 눈물 흘리고,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리고,
햇빛이 비치면 마음이 밝아져요.

배를 보면 떠나지고 싶고,
비행기를 보면 고향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가가 되어야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지만,

세상의 진리는
앞에서는 평화의 조약을 맺고,
뒤에서는 무기를 판매하지요.

어떤 바보는,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밤 늦도록 술마시며
응석부렸죠!

작가소개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국제 펜클럽 회원,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2회 입상. 시집 <토기장이> (그 사람은 틀 안에 있고 나는 틀 밖에서 있다)

전쟁 트라우마 노출된 이란 어린이들... 큰소리만 나도 화들짝

수면장애·악몽·공격적 행동 증세로 상담받는 어린이들... 정권은 어린이들 전쟁터로

"전쟁 전엔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뇌가 민감하게 반응해요."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란에 사는 15세 알리(가명)는 지금도 문이 광 달하거나 식기류가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곤 한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이 만든 공포가 알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다.

영국 BBC 방송은 9일 이란에서 많은 어린이가 이처럼 심리적 '과각성' 증세를 겪고 있다면서 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과각성은 자극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불안, 극도의 피로, 수면 장애 등으로 이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란 인구의 약 20%는 14세 미만으로 약 2천40만명에 달한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운동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3천636명이 숨진 가운데 최소 254명은 어린이였다. 부상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

전쟁 시작 후 알리 같은 이란 어

린어들은 학교, 친구 등 외부와 연결이 끊어진 채 집에서만 머무르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견뎌야 했다.

알리는 BBC에 "친구들과 연락도 못 하고 있다"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커나가야지 이렇게 계속 정치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끝없는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쟁 시작 후 이란 학교들은 문을 닫았다.

거리는 이란 정권의 바시즈 민병대원들이 통제하고 있다.

대부분 어린이, 청소년들과 민간인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불안한 휴전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테헤란의 한 인권센터에는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진 어린이들의 전화, 방문 상담이 크게 늘었다.

이곳 상근자인 아이샤는 "우리는 수면 장애, 악몽, 집중력 저하, 심지어 공격적 행동까지도 많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만 이란 어린이들을 전쟁의 트라우마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이란 정권은 어린이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란 정부는 부모들에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바시즈 민병대에 들어

가 지역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 경비를 서라고 요구해왔다.

한 정부 인사는 TV 연설에서 "자녀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 테헤란 거리의 검문소에 나갔던 11세 소년 알리레자 자파리는 지난 3월 29일 드론 공습에 숨졌다.

이란의 현행 안보 법규상으로 15세 미만 아동도 군 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어린이들을 군 복무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짓밟고,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미소 하우스 (하숙, 민박)

뉴몰든역 3분, 하이스트리트 1분 거리 넓은 단독주택
출장 주재 연수 여행 집 구하기 전, 귀임 전 잠시
깨끗하게 정리된 1인 욕실룸~가족룸, 세탁 서비스
신선한 재료 사용 맛있는 아침 저녁 한식, 욕실용품
카드결제 가능, 홈 둘러보기 : www.misolondon.com
카톡 문의 : **misohouse** ☎ 0782 333 6807

11+, GCSE, A Level 수학과외

11/13/16+ 명문 공/사립 입학시험준비
GCSE, A Level, Further math
STEP, MAT, TMUA 최상위 명문대 입학시험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20년 이상 경력
☎ 07958 677 211

조은 하숙 (구 이모네)

뉴몰든역 도보 2분 거리. 런던 시내 접근 매우 편리
아침 저녁 최고 맛있는 한식 제공
1인실부터 가족룸까지 다양한 룸 완비
장·단기 출장 / 연수 / 가족 여행 환영
☎ 07817 921 280 | 카톡 : leedh022769

GCSE A level 수학

영국 수학교사 자격증 PGCE 보유 (영국 중등학교 교사경력)
지도학생들 UCL 비룻 명문 러셀그룹 대학교 합격시킨 경험
캠브리지대, 임페리얼 칼리지 지원 및 입학시험 지도
취약 부분 맞춤 지도, 시험 테크닉 제공
수업은 영어나 한국어로 온라인 진행
☎ 07508 218465 (여)

편안하고 아늑한 정 하우스

출장, 주재, 가족 여행, 집 구하기 전 임시거주 등
어떤 목적에도 적당한 게스트 하우스.
아늑한 리셉션, 초고속 인터넷, 세탁 서비스,
깔끔하고 맛갈스런 아침 저녁 제공, 카드결제 가능.
뉴몰든 역 10분, 집앞 버스 213, K1. 구 올리브 하우스.
☎ 07908 522 109 카톡 ID : junhouse5

KS3, GCSE, A-Level 수학 과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UMIST 전자 통신 공학 석사
선생님이 수학, 물리, 생물, 화학 과목들을
각 보드별에 맞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영국 지도 경험 10년 이상. (Zoom 수업 가능)
☎ 07846 350 561

인벤토리 청소전문 - 서울클리닝

10년 노하우 인벤토리 청소 전문
처음부터 인벤토리 체크까지
책임지며 훼손된 부분 수리가능
☎ 07947 299 669 / 07432 703 156

GCSE, KS3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수업, GCSE, IGCSE 각 보드별 수업
(AQA Edexcel, OCR, Cambridge, WJEC).
Key stage 3, 13+ 준비, 식스폼 학교 입학시험 준비.
따라가기 힘든 Y5-Y11 학교 진도와 숙제 봐드립니다.
런던대학 킹스컬리지 과학교육학 석·박사.
영국 지도경험 20년, 전직교사(여) ☎ 0794 162 5292

성악·음악이론 집중 레슨

서울대 음대 졸업
영국 왕립음악원(Royal College of Music) 석사
ABRSM·예중/예고·음대 입시 전문 지도
찬양·합창·취미 성악도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지도를 찾고 계신가요?
☎ 0791 914 0478

백프로 골프교실

골프관련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드립니다.
☎ 07770 392 060
baigpro@hotmail.com
Inner Drive Golf New Malden,
30 High St, New Malden KT3 4HE

◆ 플루트 레슨·음악이론 레슨 ◆

Professional Teaching Specialist
전문가가 빠르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학생들 그레이드·음악장학생·음악이론 전문.
☎ 0783 468 7828 뉴몰든 파운틴

UK Top Tour

프리미엄 투어 / 의전 / 공항픽업 / 캡서비스
전문통역 / 벤츠 V-Class / E-Class
☎ 07879 405 139 카톡 : kingstonplus
(직원 모집 : 워홀 환영)

런던건축

고객맞춤형가격/영국표준품질/철저한 사후관리
• Fully Insured(10 Million)
• 하우스/레스토랑/사무실 • 신축/중축/변경 • 설계/디자인/카운실 허가
• 증명서 발급/설치/수리(가스/보일러/전기/연더히팅/에어콘)
• 인테리어/리퍼비쉬
Mobile. 07515 738 777 dyk8855@gmail.com

런던 우체국 London Parcel Office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SOUL estate agents

서울부동산 | 020 8949 4989
158 High Street, New Malden, KT3 4ES



스마일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 07961 778 296

생활광고 안내

1회: £15
2회: £25
3회: £30
6회: £50
8회: £65
12회: £90
24회: £150

이메일로 광고 내용, 게재 횟수,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koweekly@koweekly.co.uk

코리아 위클리리는 본지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 정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아 위클리리는 광고주의 광고내용, 연락,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의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품,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4월 아름다운 고통의 십자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알려진 아이슬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늘 우울할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시인이 가장 많은 곳이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길고 추운 겨울날의 고통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며 시를 쓰는 것이랍니다.

피테는 고통도 지나가면 달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곤란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안겨 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만큼 현명한 사람이지만 좁은 마음에서는 곤궁할수록 난폭한 언행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방향성 식물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향기를 내지 않지만 짓뭉치고 으깨어지면 달콤한



향기를 사방에 날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그동안 쌓은 내공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

땀을 흘리는 것은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고통에 무릎 꿇지 않고 고통을 극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고 추운 겨울의 고통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아름답지만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등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겸손할수록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고난이 크다고 합니다. 영광만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보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헤어집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며 깊은 늪 속에 빠져갑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나와 당신이 겸손하고 거룩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좁아서 완전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용서와 증오의 갈림길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무겁습니다.

모두 십자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최성주 목사

런던안디옥교회 담임

김치, '어떻게 먹을지' 고민해야

불과 두 해 전까지 나는 런던에서 파인 다인(fine dine) 일식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총 72석 규모로, 8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스시바, 44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의 홀, 안쪽엔 20명이 앉을 수 있도록 분리된 다다미 형식의 파티룸도 있었다. 정통 일식 레스토랑이었지만 내가 인수하면서 한식 메뉴를 추가해 일식&한식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일식에 익숙한 런던 사람들에게 한식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취지였다.

레스토랑의 위치는 런던 서쪽의 중심인 '해머스미스'라는 곳으로, 서울의 신촌쯤 된다. 슈퍼리치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상류층 백인들이 고객의 대부분이었다.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배우 콜린 퍼스, 전임 수상 데이빗 카메론, 영국의 국민 여배우 쉐라 헨콕, 왕비 카밀라의 아들이자 최고의 음식 평론가인 톰 파크볼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칼럼니스트인 메튜 노만을 비롯해 아나운서, 영화감독, 신문사 주필과 기자 등이 단골로 오곤 했다. 덕분에 한국의 조·중·동 같은 주요 신문사 3곳에서 한 면을 다 할애해 필자의 레스토랑과 음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레스토랑은 2024년 4월 임대 계약이 종료돼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다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영국인의 음식 문화, 더 크게 보면 유럽과 서양인의 관점에서 한국 음식이 풀어가야 할 숙제를 내가 고찰한 관점에서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류에 힘입어 한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마침 런던은 새로운 음식 문화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용광로 같은 국제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장님 8번 테이블 손님들 김치

를 벌써 다 먹었어요. 메인 음식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난 감한 표정으로 직원이 내게 와서 말한다. 그러면 나는 "추가로 주문받고 가격도 추가하면 된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당시 일식을 주문받을 때는 김치에 대해 별도의 가격을 받았고, 한식은 메뉴에 따라 김치를 기본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김치의 레시피는 나의 할머니, 어머니를 거쳐 나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전수된 것이었다. 그러니 기본양념이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맛이 조금씩 다르다. 배추를 비롯한 재료의 특성과 담그는 사람의 노하우, 섬세한 터치가 만들어내는 손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치를 담가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특강, 방송, 세미나, 워크샵, 잡지 등에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동일한 레시피로 만들어도 모든 김치는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이다. 그러니 더욱이 한국 김치와 중국 김치는 절대로 같을 수 없고, 나는 열정을 다해 영국인들에게 한국 김치의 맛과 장점을 설교했다.

아직 메인 음식이 안 나왔는데 손님들이 김치를 벌써 다 먹었다는 얘기는 영국인 손님들이 올 때마다 거의 매번 반복되다시피 했다. 한국인이라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김치를 싹 비우는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정이 이쯤 되자 내가 만든 김치를 먹는 영국인들의 태도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에서 자주 적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고객들의 성별, 메뉴별, 점심·저녁 시간대별, 동석자 유형별, 포크와 젓가락 같은 도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 교양강좌 '한류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2024년 4월 27일 영국 옥스퍼드 한식당 '요리'에서 김치를 주제로 한 수업에 참여해 토마토 김치를 만들어보고 있다.

구별 등등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이들의 식사 과정을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했다.

결론은 명쾌했다. 김치는 단지 스타트(전식)일 뿐이란 것이었다. 이는 사실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좀 더 학문적인 방법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반찬'을 모르는 영국인들에게는 메인 요리에 앞서 나온 김치가 스타트(전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서양의 테이블 문화는 우리의 밥상 문화와 많이 다르다. 가볍게 먹는 'eat' 인지 격식 있게 먹는 'dine' 인지 따라 다르고, 포장해 가서 먹는 'Eat in' 인지 식당에서 먹는 'dine out' 인지 따라서도 다르다. 영국에 살면서 관찰한 이 차이점을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음식 문화가 그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테이블 문화는 시간 계열형(Time Management)이다. 반면, 한국의 밥상 문화는 공간 전개형(Space Management)이다.

이처럼 상이한 음식 문화는 출발부터 다르다. 시간 계열형은 메뉴를 보고 전식과 주식과 후식으로 구분한 뒤 코스별로 먹는다. 이때의 기능적 장점은 먹는 사람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at'과 'dine'의 결정적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제를 위한 외식(social dine out)이 발생하는 이유로, 음식의 기능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 쉽게 말하자면 외식 상대는 누구인가, 이 외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외식의 관리 형태는 어떠한가 하는 등이 변수인 동시에 항상 고려해야 할 상수라는 점이다.

필자가 런던에서 30년간 살면서 고찰한 시간 계열형의 배미 또한 이것이다. 3코스가 5코스가 되기도 하고, 5코스가 갑자기 7코스가 되기도 한다. 값비싼 와인이나 음식이 테이블 위에 나오는 것은 필연이다. 교제를 위한 외식이니 가격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쯤에서 김치를 다시 소환해본다. 스타트를 넘어 메인 메뉴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

다면 Eat과 Dine에서 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3코스에서 김치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5코스에서 김치가 메뉴에 올라온다면 그 김치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의 'You are what you eat'이란 표현은 진부하다. 이제는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의 'You are how you eat'을 논의해야 한다. 한류에서 김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중심 역할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영국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다. 그저 김치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유로 김치의 세계화를 이야기한다면 부족하다. 모든 음식은 맛있고, 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간마더스



정갑식

gsjeung@hotmail.com

영국 Oxfordbrookes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과, 런던에서 Dinning, Eating out Trend 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Fashionfood21 Ltd 대표.



재영한인교회연합회

KCA in the UK

Hanbeel Church 런던한빛교회

바른 신학 · 바른 교회 · 바른 생활

주일예배

1부 : 10:00 am (한빛센터)
2부 : 2:00 pm (본당)
유치부 : 2:00 pm (본당)
유초등부 : 2:00 pm (본당)
중고등부 : 2:00 pm (한빛센터)
청년부 : 4:30 pm (한빛센터)

주중예배

수요예배 : 8:00 pm (한빛센터)
새벽예배 : 5:30 am (한빛센터)
수요토들러그림 : 10:00 am (한빛센터)

담임목사 : 김동윤

홈페이지 : www.hanbeel.org / 전화 : 0208 546 3600
한빛센터 : 122 London Rd., Kingston, KT2 6QJ
본당 : 한빛교회/KMC, 13 Fairfield South, KT1 2UJ

아름다운교회

ST. JOHN'S CHURCH Spencer Hill, Wimbledon SW19 4NZ



주일예배: 오후 2시
새벽예배: 6:00 am (월~금)

새벽예배는 줌으로
ID: 840 7687 8395
PW: 024086

담임: 백장현 목사
bkclondon@gmail.com
07748 500 038

www.bkclondon.com

런던센트럴순복음교회

교회 4대 목표 십자가 복음과 사랑·말방을 위한 중보기도·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주대 교회의 회복

예배장소

The Borough Welsh Congregational Chapel
90 Southwark Bridge Rd., London, SW1 0EX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담임목사 이상보

문의 07449 767905

홈페이지 www.londoncentralchurch.org



구세군 런던한인교회는 다양한 문화(Inter-Cultural Church)와 세대(Inter-Generational Church)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교회입니다.

주일예배: 오전 11시
109 Kingston Road, London SW19 1LT
wimbledon@salvationarmy.org.uk



Weybridge White House

말씀과 기도의 집

The WCRD and Prayer house

주일예배 오전 11시

담임: 김호근 목사

주소: 77 Heath Road, Weybridge, Surrey KT13 8TN
E-mail: wphlondon@hotmail.com
문의: 장순영 선교사 07917-726-839

웬블던 꿈이있는교회

주일 오전 10시 30분
The Priory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Queen's Rd, London SW19 8LX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이영주

godsvisionchurch.org
07949947800

mokjada

info@godsvisionchurch.org



센트럴 꿈이있는교회

주일 오후 2시
Welsh Baptist Church, 30 Eastcastle Street, London, W1W 8DJ

· 주일학교는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이영주

godsvisionchurch.org
07949947800

mokjada

info@godsvisionchurch.org



런던 주찬양교회

Praise The Lord Church of London

1. 예배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2.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3. 성령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4. 전도, 헌신, 봉사로 하나되는 교회

■ 주일 예배 : 오후 2시 ■ 담임 목사 : 김주경

■ 문의 : 07528 295 356 / ukjkm11@gmail.com

160 Green Lane, Morden, Surrey SM4 6SR

옥스포드 선교교회

Oxford Mission Church

주일예배: 10.30am
장소: Wycliffe Hall Chapel
주중예배: 수, 금 7.30pm
새벽예배: 매일 6am

담임목사: 천계상
oxfordmissionchurch@gmail.com
www.oxfordmissionchurch.wixsite.com/home

런던벤틀교회

BETHEL CHURCH OF LONDON

예배시간

주일예배 : 11AM
새벽예배 (월~금) : 6AM
수요예배 : 8PM
저녁예배 (일, 화, 목) : 8PM

문의 : 07584 027756 이승복 담임목사
Unit 1, 167A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런던새중앙교회

The Love Of Jesus

주일예배 : 오후 2시
새벽기도 : 오전 6시
화요성경공부 : 오후 1시

이메일 : incc@naver.com
전화 : 07790553317

예배장소 : St. John's Church,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RX

담임목사 : 황형식

런던영광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오후 2시
주일학교 : 오후 2시
새소식반 : 금요일 오후 3:30~6:00
Mothers & Toddlers : 수요일 10:30~12:00

연락처 : 안병기 목사 / 김경순 사모
revbkahn@gmail.com / mksahn@gmail.com
07990 760354 / 07747 325242

On a rainy day Jesus will be your umbrella!

글로리아 센터

정소년: 10시, 청년 5시 (High St, New Malden, KT3 3PY)

교회

장년 & 주일학교 교사 (39 Ewell Road, Surbiton, KT6 6AF)

Gloria Church

조성영 목사 07914069732

런던 [시내, 센트럴] 예수비전교회

London Jesus Vision

예배: 주일 오전 11시 /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Paget Christian Centre 18 Randell's Rd, London N1 0DH

지하철: St. Pancras Int. (유로스타), Kings Cross역 도보 7분 교회 주변 무료 주차 가능

담임목사: 이희영
카톡 ID: revheui
<http://ljvc.org>
020 8346 2070 / 07828 267762

케임브리지 열림교회

Cambridge Yeolim Church

예배장소
Castle Street Methodist Church, Castle Street, Cambridge CB3 0AH (주차장은 2 St Peter's Street, CB3 0AH)

예배시간 : 주일 오후 2시

담임목사 : 김태규

문의 : 01223 573275 07837 840294
www.cambridge.onmam.com

웬블던한인교회

Wimbledon Korean Baptist Church

예배장소 : Wimbledon Baptist Church 129 The Broadway Wimbledon SW19 1QJ

예배시간 : 새벽기도 online → 오전 6시(화~금) 금요기도회 → 오전 10시(격주) 주일예배 → 오후 2시

문의 : 권종현 목사
enochwith@yahoo.com

런던순복음교회

LONDON FULL GOSPEL CHURCH

"예배가 살아있는 행복한 교회!"

· 주일예배 (한국어 / 주일학교 / 인터네셔널)
1부 : 오전 8:30 | 2부 : 오전 10:30 | 3부 : 오후 1:30
유아, 유초, 중고 : 오전 11시 | 인터네셔널 : 오전 9시

· 주중예배 (수요 / 금요 / 새벽)
수요 : 저녁 7:30 | 금요 : 저녁 8시 | 새벽 : 월-금 오전 6시

· 담임목사 김용복

www.lfgc.co.uk | 0208 944 6781
lfgcuk0691@gmail.com | [karra0510](http://www.karra0510.com)
37 West Bamed Lane, Raynes Park, SW20 0BL

리버풀한인교회

Liverpool Korean Church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 주일예배 : 오후 1시
· 담임목사 : 지성구
· 카톡ID : ukm0691

· 예배장소 : St Philemon's Church 78 Admiral St., Toxteth, Liverpool L8 8BR

· 인스타 : @liverpoolkoreanchurch.org
· 홈페이지 : liverpoolkoreanchurch.org

유럽기도선교

Prayer Mission Europe

복음에 빛진 한국 교회가 겸손, 희생, 섬김의 마음으로 영국과 유럽을 위해 기도로 진행되는 선교사역

담당사역자 : 김남진 목사
07547 373 864

런던새로운교회

London New Church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 주일예배 : 오후 2시 30분
· 새벽예배 (월-금) : 오전 5시 30분
· 금요집회 : 저녁 8시
· 담임목사 : 권순신
· 전화 : 07795 467248
· 홈페이지 : www.gp21.org

Emmanuel Church, Dudley Drive, Morden, SM4 4RJ



가치 있는 상품을 만나는 스토어 웰빙 카페

WELL-BEING CAFE

프리미엄 딸따냥 발패치

£15



Made in Korea

- 장시간 서서 일하는 분
-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분
- 평소 발이 차가운 분
- 부종이 있는 분
- 발에 자주 쥐나는 분
- 여행이나 장시간 걸은 날

한국산 천연 게르마늄 함유

무겁고 피곤한 다리와 발을 가볍게!

하루의 피곤을 패치 한 장으로 간편하게!

네오뎀 3000 가우스 동전패치

원하는 부위에 빠르게 통증 탈출!!! £15



Made in Korea

어깨 / 손목 / 무릎 / 허리

근육통이 느껴지는

어디든 부착하면

강력한 자력으로

빠른 통증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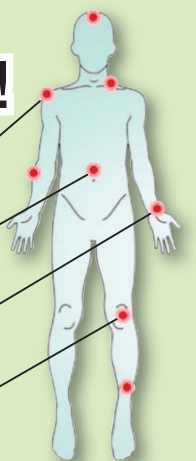
근육통 완화 !!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손목 통증

무릎 통증



리필패치

네오뎀 영구자석은 리필 패치에 부착하여 재사용 가능합니다.

플라즈마 바이러스 클리너

- ✓ 초소형
- ✓ 저소음
- ✓ 노필터

£85



Made in Korea

탁월한 살균 효과

플라즈마 입자 발생시켜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제거

빠른 탈취 효과

실내 공간 각종 냄새 신속 제거

휴대용 개인방역

지하철, 버스 등 외출시 감염 걱정 끝

경제적 친환경 살균효과

필터 없이 간편 사용, 잔류물 없는 방역

£11



Made in Korea

제품 설명 QR 참조



www.cdkorea.kr

구/입/문/의 코리아안위클리 온라인 사업부

07842 758 697

판매처 : 한국문화예술원 (뉴몰든 하이스트리트)

쿠팡·아마존·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기 판매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2026.04.08 ~ 04.27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 실시한 제 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

신고·등록신청 방법



· 인터넷 ova.nec.go.kr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공관방문 / 순회접수 시 서면 신청

· 우편 / 전자우편(e-mail) 해당 공관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확인하세요